



수목극 1위로 종영한 드라마 '김과장' 남궁민

# “이준호와 베스트 커플상 받고 싶어요”



## 브로맨스·뜯끼 넘치는 연기로 인기 “시청률 높았지만 부족함 느낀 작품”

“실제로 그렇게 웃기나요? ‘인간 남궁민’은 정말 재미가 없어요. 쇼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가고 싶은데 제가 예전에 나왔던 걸 모니터링해보면 헛소리만 하고 있더라고요. 하하”

수목극 시청률 1위로 화려하게 퇴장한 KBS 2TV ‘김과장’에서 주인공 김성룡 과장을 완벽하게 표현해 극찬을 받은 배우 남궁민(39)은 이렇게 말했다. 극 중 ‘뜯끼’ 다분했던 김성룡을 표현하기 위해 노랑계 물들였던 머리카락도 차분한 검은색으로 돌아와 있었다.

실제 성격은 김과장과 전혀 다르다는 남궁민이 ‘티끌이(TQ그룹 뜯아이)’를 완벽하게 구현해낸 건 역시나 부단한 노력 덕분이었다.

남궁민은 12일 강남구 논현동의 한 카페에서 가진 ‘김과장’ 종영 기념 인터뷰에서 “드라마 시작한 지난 연말부터 끝나는 날까지 단 하루도 쉬지 못했다”며 “게다가 이때까지 했던 캐릭터 중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캐릭터가 처음이어서 대본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과장 캐릭터가 저와 너무 달라서 사실 좀 고생을 했다”며 “조금만 방심해도 원래 남궁민의 습성이 나와버리니까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남궁민은 김과장을 제대로 표현해내기 위해 머리는 물론 목소리 톤과 말투까지도 끊임없이 갈고 닦았다고 전했다.

그는 “원래 목소리는 저음인데 이번에는 성대에 힘을 많이 주고 톤에도 피치를 많이 올렸다”며 “그러다가 중간에 감정이 들어가는 신에서는 저음으로 좀 낮추려 했는데 생각보다 감정 신이 많이 안 나오더라”고 설명했다.

이번 드라마에선 서울 이사를 연기한 이준호와의 브로맨스가 단연 화제였다.

남궁민은 이준호와의 ‘보보신’에 대해 “원래 애드리브가 과한 걸 안 좋아하지만 작가의 대본 내에서 좋은 양념을 더 하는 이런 애드리브는 좋다”며 저보다 어린 PD가 ‘항님 입술이 안 닿았습니다’ 해서 세 번인가 찍었다. 연말 ‘베스트 커플상’을 꼭 받고 싶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남궁민은 또 극 중 가장 속 시원했던 장면으로 김과장이 “암행 티끌이 출두요”를 외치면서 엔딩을 맞는 것을 꼽았다.

그는 “그 장면을 찍을 때가 새벽 4시였고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 답답했는데 딱 한 테이크 만에 성공했다”며 “카메라의 움직임, 제 표정, 그리고 이어지는 만화 컷까지 느낌이 잘 살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반에 회장 아들인 명석(동하 분)이 경리 부 직원들에게 ‘갑질’을 할 때 김과장이 ‘뭐 이 새끼야’라고 말을 던진 부분에서도 통쾌함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본인 주장대로라면 원래는 웃기지 않는 그지만 촬영장에선 그의 익살스러운 때문에 다른 배우들과 스태프의 폭소가 끊이지 않아 NG가 나기 일쑤였다는 뒷얘기도 전했다.

만화 속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김과장이란 캐릭터지만 대중은 옆집 총각처럼 친근하게 느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남궁민은 이에 대해 “대중이 ‘이 사람이 이러면 어떨까’ 하는 기대에 맞게 대놓고 가려운 곳을 식상 굶어줬기 때문에 대리만족을 느낀 게 아니겠느냐”며 “또 초반과 달리 후반부로 갈수록 남들을 위해 행동하는 모습에 나쁜 짓을 해도 미워 보이지 않았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남궁민의 첫 주연작 ‘김과장’은 그에게 ‘대기만성형 배우’라는 별명을 안겨줬다. 데뷔한 지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 그는 ‘김과장’을 하면서 처음으로 배우로서의 목표가 생겼다고 한다.

그는 “오랜 시간 기다릴 때 아무것도 안 했다면 좌절했을 텐데 늘 어떻게 하면 연기를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연구했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조금씩 있었고 자신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우는 자기에게 만족하고 고인 물이 되면 절대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항상 움직이고 변화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며 “부지런하지 않으면 좋은 연기라도 계속 같은 연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고이지 않은, 흐르는 물과 같은 연기가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

연말 연기대상에 대한 기대가 없느냐는 질문에 그는 “물론 주시면 기쁘겠지만 앞으로 이번보다 훨씬 더 좋은 연기를 할 수 있는 자신감과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으니 그때 주셔도 상관이 없다”고 웃으며 답했다.

또 “이번 작품에서 첫 주인공을 맡은 것, 시청률이 높게 나온 것도 좋지만 저 스스로 연기가 여전히 부족함을 깨닫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와 열정을 바탕으로 한 자신감을 다시 얻은 작품이라 더 의미 있다”고 말했다.

/연협뉴스



## MBC ‘발칙한 동거’ 정규 편성…내일 첫 방 용감한 형제-전소민-양세찬 새롭게 합류

배우 한은정과 동거 계약 연장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NO’를 외쳤던 김구라. 3개월도 되지 않아 결국 한은정의 집에 제 발로 돌아가게 됐다.

지난 설 실험적으로 편성돼 지상파 파일럿 프로그램 중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MBC TV ‘발칙한 동거’가 정규 신분이 됐다. 첫 방송은 오는 14일, 금요일 밤을 노린다.

이 프로그램은 전혀 다른 개성을 가진 스타들이 실제 자신이 거주하는 집의 빈방을 다른 스타들에게 내주며 벌어지는 일상을 보여주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김구라와 한은정 외에 지난 설 파일럿 때 참여했던 블라비 피오-개구리 김신영-기수 홍진영도 함께 합류했다. 새 얼굴로는 프로듀서 겸 작곡가 용감한 형제, 배우 전소민, 개그맨 양세찬이 등장한다. 용감한 형제는 집주인, 나머지 두 사람은 세입자 신분이 된다. 또 이 집에는 최초로 용감한 형제의 ‘동거견(犬)’이 등장해 새로운 조합을 보여줄 예정이다.

프로그램 구성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집주인들과 방주인들이 일정 기간의 동거 생활을 마친 후 파트너와 계속 같이 살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지난번 동거에선 ‘계약 연장 NO’를 선택했던 김구라-한은정, 피오-김신영-홍진영의 선택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김구라는 12일 마포구 삼암동 MBC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파일럿 프로그램 종료 후 한은정과 계약 연장을 거부한 데 대해 “그 집에 가서 살면 밥을 한 두 끼는 얻어먹을 줄 알았는데 못 먹었다. 쉬러 갔는데 유리도 닦았다”고 푸념했다.

이에 한은정은 “혼자 살기 때문에 방장고거 거의 비어 있다”며 “촬영을 의식해 채우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먹을 게 너무 없어 최종한 부분은 있었다. 방송이 나간 이후 큰 죄를 지은 느낌”이라고 말해 방송 전부터 웃음을 자아냈다.

14일 밤 9시 30분 방송.

/연협뉴스

TV 프로그램 1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연재나 불발)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다큐에세이, 여기 이 사람	25 닥터 365 30 아침연속극 (아일 쓰리 강남구)
9	30 KBS 뉴스	00 TV스쿨 (그 여자의 바다)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중계방송 제98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30 코리아 지오그래픽 플러스(재)	40 지구촌 뉴스	50 수목드라마 (자체발광 오피스)(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명견만리(재) 55 감성툰 고맙습니다(재)	00 수목드라마 (추리의 여왕)(재)		00 애니캐러리 30 교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05 일일드라마 (다시, 첫사랑)(재)	00 MBC 정오뉴스 20 19대 대선 정국정책 방송연설 (더불어민주당) 30 주말드라마 (당신은 너무합니다)(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목 보습실계 55 닥터 365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네트워크 기획 문화산책 55 생로평사의 비밀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 (재)	25 드림 주니어 스페셜 55 내일은 언제나 무름	00 2시, 뉴스브리핑
2	50 코리아 지오그래픽 플러스(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 (재)	25 MBC 일일드라마 (황금주머니)(재)	00 토크서트 화통 55 지식 통조림
3	10 사람과 사람들(재)	00 자동차부채상 위키 2 30 TV 유치원	00 뉴스M	00 SBS 오뉴스 50 KBC 저녁뉴스
4	00 4시 뉴스집중	00 누가 누가 잘하나	00 뉴스M	05 날씨와 생활 10 교향연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30 생방송 TV블로그 토크리얼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타닝매카드 W 2 30 주간연예수첩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오뉴스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교향연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30 생방송 TV블로그 토크리얼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밤상	50 일일드라마 (다시, 첫사랑)	15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토크리얼 20 일일드라마 (사랑은 방울방울)
8	25 일일연속극 (빛나라 은수)	30 글로벌24 55 속보이든 TV 인사이드	55 MBC 일일드라마 (황금주머니)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KBS 스페셜 (편보결즈) 55 감성툰 고맙습니다	00 수목드라마 (추리의 여왕)	00 수목드라마 (자체발광 오피스)	00 2017 국민의 선택 대통령 후보 초청토론 1~2부
11	00 KBS 뉴스라인 30 제19대 대선 정국정책연설 (자유한국당) 40 목요기획 2부작	10 해피 투게더	10 MBC 100분 토론	
12	3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MBC 뉴스 24 55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30 나이트라부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통일 미리보기 (워싱턴 여성관찰보고서)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합일 불고기와 모닝버거)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레인보우 루비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7:45 출동! 슈퍼윙스 (95세 일행이 할매와 백년손님)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장수의 비밀 (95세 일행이 할매와 백년손님)
08:00 뽀롱뽀롱 유치원 1~2 08:30 뽀롱뽀롱 08:45 Why - 최고다! 호기심따지 09:00 주사위 요정 큐비주 09:15 열마 까투리(재) 09:30 물랑	12:40 지식체널e (질책을 건다, 중국 전도공) 14:30 호기심따라 오기도 15:00 그림을 그려요
	15:05 두키 탐험대 15:20 마사와 곰 15:35 모피와 친구들 15:45 랜드러더러 삼국전 16:15 허풍선이 과학쇼(재) 16:30 Why - 최고다! 호기심따지(재) 16:45 뽀롱뽀롱 유치원 1~2(재) 17:15 뽀롱뽀롱 뽀로로(재) 17:30 로보가 폴리 17:45 뽀롱뽀롱(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4 19:00 갤럭시 안전 프로젝트 19:30 EBS 뉴스 19:5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20:50 세계테마기행 (미국역사기행 4부 이민자의 도시 뉴욕 맨해튼) 21:30 한국기행 (부자의 비밀 4부 나의 가장 큰 재산) 21:50 리얼극장-행복 (외도 40년, 이제는 내 남편이 된 배우 김희라) 22:45 다문화 고부열전 23:35 금쪽같은 내 새끼(재) (개구리 김경아와 할머니) 24:05 지식체널e 24:10 스페이스 공감 1.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13일 (음 3월 17일 庚午)

<p><b>子</b></p> <p>48년생 다름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함께 해소되리라. 60년생 단 분간 발음이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2년생 상대의 반응이 시원치 않았다. 84년생 마음에 차지 않더라도 다수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도 권한다. 행운의 숫자 : 53, 44</p>	<p><b>午</b></p> <p>42년생 대중 넘어가도 될 문제가 아니다. 54년생 구대의연한 인습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일이다. 66년생 즐거운 일이 겹칠 수 있다. 78년생 서로 뜻이 어긋나지 않을까 두렵다. 90년생 주목받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57, 36</p>
<p><b>丑</b></p> <p>49년생 애매하다면 즉시 결정하지 말고 판단을 보류하는 것이 합당하다. 61년생 여러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뜻밖의 해결책이 나온다. 73년생 충돌이 생길 수도 있다. 85년생 대체에 따르지 말고 주체적으로 판단할 일이다. 행운의 숫자 : 93, 68</p>	<p><b>未</b></p> <p>43년생 진면목을 목도하게 되리라. 55년생 통째로 잘 알아야 완성될 것이다. 67년생 막연한 집착은 행복지수를 하락시킨다. 79년생 난관은 자기 성찰을 하게 하는 기회를 준다. 91년생 급할수록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빠르다. 행운의 숫자 : 55, 45</p>
<p><b>寅</b></p> <p>50년생 조금만 더 가면 목표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62년생 단 번에 큰 것을 이루기에는 무리가 따르니 점진적으로 행하라. 74년생 매우 부담스럽고 벅찬 하루가 될 것이라. 86년생 돌발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92, 59</p>	<p><b>申</b></p> <p>44년생 경중을 제대로 파악하여 긴요한 일부터 처리하는 것이 무방하다. 56년생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리라. 68년생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것이니 적극적으로 나서라. 80년생 상호간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56, 80</p>
<p><b>卯</b></p> <p>51년생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이 합리적이다. 63년생 남 좋은 일만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라. 75년생 타이밍이 잘 맞아떨어지면 기대했던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87년생 유기적인 관계의 설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06, 65</p>	<p><b>酉</b></p> <p>45년생 타당성이 없으니 무시해도 된다. 57년생 지나치면 모순이 따를 수밖에 없다. 69년생 의무를 다 한 후에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맞다. 81년생 주변인의 그 어떤 참견도 의식할 필요가 없으니 주관을 가져라. 행운의 숫자 : 08, 94</p>
<p><b>辰</b></p> <p>52년생 오매불망하며 학고고대해 왔던 것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64년생 불만족스런 정황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대세이다. 76년생 현재의 실정을 반영하는 것이 옳다. 88년생 활용한 다면 길사로 연결되리라. 행운의 숫자 : 70, 38</p>	<p><b>戌</b></p> <p>46년생 날카롭게 분석하고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손해를 야기한다. 58년생 사소한 국면에 사로잡히지 말고 편견 없이 대할 일이다. 70년생 소화에 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이다. 82년생 천재일우의 호기이다. 행운의 숫자 : 99, 62</p>
<p><b>巳</b></p> <p>53년생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없어도 있는 것처럼 대하라. 65년생 불리한 관계가 될 수 있다. 77년생 아무리 어색하더라도 충분히 의사 전달을 해야만 하는 시점이다. 89년생 불합리한 점이 보일 것이니 속히 바로 잡아라. 행운의 숫자 : 50, 17</p>	<p><b>亥</b></p> <p>47년생 너무나 비속해서 진위를 혼동하기 쉬운 것이니라. 59년생 겉으로는 말짱해 보이지만 내면의 부실함이 상당하다. 71년생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봉하라. 83년생 무미미한 일이나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행운의 숫자 : 24, 84</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